2022년 7월 1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월 10일(일) 12:00 이후 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문의 : 벤처혁신정책과 박상용 과장(044-204-7700), 윤성웅 사무관(7703)

원전산업 활성화 위한 500억원 규모 특례보증공급

□ 원전산업 거래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산업 관련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

○ 일반보증 대비 한도를 30% 증액, 보증료는 0.3%p 감면, 보증비율은 95%로 상향

□ 기존 대출금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일 도래하는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원자력산업 활성화와 원자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7월 1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을 포함해 폭넓게 운영한다.

또한,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증료율을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하는 등 우대함으로써 기업의 금융 비용부담도 낮춰준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상담(컨설팅)을 거쳐, 필요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경영애로 기업은 아니더라도 상환부담을 호소하는 기존 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준다.

아울러, 신속한 애로파악과 보증지원을 위해 기보 9개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 관할 62개 모든 지점에 대응반을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사무관(☎ 044-204-77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